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수자원과 식량이 부족해 아사하거나, 생존을 위협받은 사람들이 일으킨 전쟁에 희생되거나, 태풍이나 해수면 상승으로 집을 잃고 떠돌지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은퇴 후에 어떻게 먹고 살지에 대한 염려는 배부른 고민일 거예요. 현재 기후위기는 우리 삶의 가장 큰 변수예요.” 방송인 타일러 라쉬의 꿈은 기후위기 해결이다. 환경에세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펴내며 그는 자신의 꿈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다. 환경문제는 우리 모두의 미래를 담보하기 때문이다.

글 이재영 사진제공 타일러 라쉬

기후위기

무너진 지구에

미래는 없다

타일러 라쉬



Tyler Rasch

기후위기 해결이 꿈이 된 이유가 있나요?

두 나라에 걸쳐 살다 보니 미래에 대한 고민이 복잡했어요. 내 집 마련, 신용관리, 노후준비 등 각 나라별로 따져 봐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미래를 계획할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게 있더라고요. 바로 환경이었어요. 저는 1988년생인데 은퇴할 나이가 되면 2050년이예요. 온난화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때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 기준 대비 2~4도 오를 거예요. 어떤 근사한 계획이라도 기후위기로 무너진 지구에서는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꿈꾸게 됐어요. 막연한 꿈이 아닌 꼭 이루고 싶은 이루어야만 하는 꿈이요.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꿈을 꾸면서 새롭게 환경에 대해 알게 된 사실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중 가장 놀랐던 건 무엇인가요?

환경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게 외로운 전투에 나서는 것과 같더군요. 심각성에 대해 외치는데 잘 봐주지 않아요. 기후과학자들이 왜 우울증에 걸리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간혹 굉장히 외로울 때가 있어요. 이걸 분명히 모두가 공감하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인데 말이죠. 이런 분위기도 의외였지만 제가 가장 놀란 건 지금 정말 늦었다는 사실이에요. 기후위기 문제를 깨닫기 시작한 건 1950년대 후반부터예요. 문제를 알고도 70년 동안 무시한 거나 마찬가지죠. 오늘날 대기권에 쌓여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400ppm이 넘어요. 산업화 이후 지구의 온도가 1도 상승했는데 이미 400ppm을 넘어왔다는 건 온실가스 배출을 멈춰도 3도가 상승한다는 말이에요. 이걸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벼랑 끝에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지만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말들을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환경시스템이 매우 복잡적이고 이해하기 어렵지만, 원리는 단순해요. 우선 두 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온실가스 배출 중단이에요. 둘째는 지구의 온실가스 흡수원(탄소 흡수원 등)을 회복하고 보전시켜야 해요. 산림과 야생서

식지를 늘려서 지구가 대기권의 온실가스를 스스로 없애는 능력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거죠. 이 부분을 기본값으로 두고 이해한 상태에서 유권자, 소비자로서 어떤 힘을 행사해서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해야 해요.

유권자, 소비자로서 할 수 있는 고민과 실천이 어떤 것 이죠?

가장 중요한 실천은 크게 세 가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 목소리를 내는 거죠. 기후위기에 대해서 끼어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을 꺼내야 해요. 일상 대화에 환경 이야기가 섞여야 관심을 가질 기회가 없으셨던 분들까지 관심을 갖게 될 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질 거예요. 기하급수적으로 환경 이슈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아져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목소리를 내야 해요. 또 목소리를 내는 사람을 지지해야죠. 둘째, 환경 인증 있는 제품을 선호해야 합니다. 구매할 때 인증이 있는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을 보여줘야 기업들이 환경인증 기준에 맞춘 생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셋째, 변화를 조금씩 조금씩 더해 가면서 가열시키듯이 해야 해요. 예를 들어 지금 당장 바로 채식하기가 힘들죠. 동물성 식품을 절대 안 먹기는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모든 고기가 같지 않아요. 생태발자국으로 봤을 때 탄소배출이 가장 많은 고기가 소고기예요. 그 다음이 돼지, 그 다음이 닭이죠. 만약 친구들하고 식사하기로 약속 잡았는데 뭐 먹을까 하다가 한우 먹자는 의견이 나왔을 때 “지난번에 맛있는 삼겹살 집이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 갈까?” 하는 식으로 제안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시작되니까요. 기준을 세우고 조금씩 기준을 올려나가는 식으로 소비패턴을 우리가 조율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목소리 내는 것, 인증 찾는 것, 소비 기준을 조금씩 올리는 것, 이 세 가지만 실천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가끔 '친환경'이라는 이름이 합한 소비트렌드가 되어서 엉뚱하게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불러 일으키는데 그걸 숨기고 Green만 내세우는 그

린워싱도 문제잖아요.

요즘 시끄러운 분야 중 하나가 수소죠. 수소차가 나오면 매연이 줄지만 수소 생산은 화석연료가 기반이에요. 결국 완벽히 깨끗하지 못하죠. 환경 이슈를 대할 때 뿌리를 따져야 합니다. 겉보기만 그린이라 아니라 진짜 그린인지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전기차, 수소차가 나온다 해도 화석연료로 돌아가는 공장에서 만든다면 소용없어요. 그 공장이 재생에너지로 돌아가는 곳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봤을 때 경쟁사보다 비교적 노력했다면 자격이 주어진다고 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서로 경쟁하며 그린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제품이라도 10% 덜 쓴다거나, 고기를 팔더라도 식물성으로 대체해 가공했다면 응원에 줘야죠.

비닐봉투와 종이봉투 중 비닐봉투가 더 환경적일 수 있다는 환경전문가의 말에 놀랐어요. 종이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벌목되는 나무를 생각하면 친환경적이지 않은 거죠. 만약 종이에 코팅이라도 하면 최악이고요. 책에서도 여러 번 강조하시죠. 그래서 인

증마크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요. 우리들이 환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인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증은 지금까지 생각보다 많이 나와 있어요. 제품을 들여다보면 한국정부가 관리하는 인증들도 있고,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인증들도 있어요. 그중에 뭐가 더 좋은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너무 많아서 다 알 수 없더라고요. 하지만 있는 제품과 없는 제품 중에서 택한다면 무조건 있는 걸로 사는 게 낫겠죠?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 아주 많이 좋아하는 인증은 FSC입니다. FSC는 국제 산림관리협의회(Forest Stewardship Council)라고 가장 철저한 지속가능 산림관리 인증이에요. 산림에서 나온 재료로 만든 제품이라면 FSC 인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든 레진이든 가능해요. 그래서 두유팩, 기저귀, 가구 등 다양한 제품에서 FSC 인증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인증이 있다는 건 목재를 소싱하는 과정이 친환경적이고, 그 산림이 지속 가능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멸종위기종 서식지나 원주민 지역에서 불법 벌목하지 않고 벌목하면 다시 키워요. 아주 확실하고 잘 관리되고 있고 알아보기 쉬워요. FSC 제품이라면 언제나 추천합니다.

타일러 씨의 저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는 FSC 인증이 된 종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이 종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출판사를 어렵게 만났다고요. 한국 최초의 FSC 인증 책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세계적으로 FSC에 대한 인식이 높아요. 해외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한국 인쇄소들도 FSC 인증 종이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케어나 맥도날드, 스타벅스 같은 엄청 큰 기업들도 FSC를 쓰고 있죠.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국은 출판계에서 소비자의 인식이 없다는 핑계로 잘 사용하지 않았습다. 개인이나 독립출판은 간혹 썼지만, 종합출판사에서 『두 번째 지구는 없다』처럼 100%로 FSC 인증 종이에 콩기름으로 인쇄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지구 반대쪽에서 온 외국인이 출간한 책이 한국 종합출판사 최초 FSC 인증 저서가 된 거죠. 자랑스럽지만 또한 굉장히 슬픈 기록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출판사와 작가들





타일러 라쉬 (Tyler Rasch)

미국 출신의 방송인이다. JTBC의 예능 프로그램 <비정상회담> 미국대표로 얼굴을 알린 뒤 다양한 교양 및 예능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있다. 시카고대학교 국제학부 졸업 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외교학을 공부했다. 8개 국어가 가능한 언어천재로 불리며 한국어도 능통하다. 전 지구적인 기후위기 상황에 대해 절박한 심정으로 환경에세이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썼다.

이 FSC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길 바라고 계약조건을 요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출간하면 무조건 FSC 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퇴행할 생각 없어요. 한국 기업 들도 마찬가지로 기관지 등을 발행할 때 FSC종이를 사 용했으면 좋겠어요.

환경파괴, 기후위기가 2020년 팬데믹을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간들의 섣다운으로 위기상황이 잠시 멈춘 것이 코로나19의 유일한 장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문제는 방역과 환경 사이의 딜레마예요. 마스크, 방호복, 일회용기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환경에 좋지 않은데요. 이 딜레마를 좀 더 슬기롭게 극복할 방법이 있을까요?

코로나 덕분에 위기 상황이 잠시 멈춰졌다는데 전혀 아니에요. 새 발의 피도 안 될 정도죠. 그저 인간이 얼마나 노력을 하지 않았나 앞으로 속제가 얼마나 많이 남았나를 제대로 보는 기회일 뿐이에요. 방역을 하면서 경제모형을 바꿔놨어요. 매우 신속하게 진행됐고 효과가 빠르게 나타났죠. 그걸 보면서 이렇게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환경문제에 대응을 하지 않는 건지 답답했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화석연료를 쓰고, 여전히 일회용품을 남발하죠. 생각을 바꿔야 해요. 일회용보다 살균비누로 씻어내는 다회용 식기가 훨씬 위생적이에요. 조금 귀

찮고 불편해도 또 다시 이런 팬데믹을 겪지 않으려면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죠. 위기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기후위기가 코로나만큼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해요.

개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국가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군요.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코로나19에 대응을 무척 잘 했어요. 경제적 타격도 덜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시선을 끌고 있고 동시에 문화적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죠. 만약 이렇게 각광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경제모형을 적극적으로 친환경, 순환경제로 바꾸겠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실제로 전환하기 시작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것이고 따라올 겁니다. 현재 한국은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위치에서 있는데 과연 기회를 잡을지, 느리게 움직여서 또 팔로워가 될 건지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지요.

따끔한 한마디였다. 이끄는 쪽이 될 것인가 따르는 쪽이 될 것인가? 희망을 좇을 것인가 절망에 탐승할 것인가? 과연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번 달 <월간 국회도서관>은 FSC 인증 종이랑 콩기름 인쇄, 후가공X 등을 시도하기로 했다.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다. 🌱